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보호, 학생징계, 분쟁조정 등의 조치가 학교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법」, 「소년법」 등에 의하여 각종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있을 수 있고, 「민법」에 의하여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	
과거의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폭력서클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류</li> <li>②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음</li> <li>③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음</li> <li>④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짐</li> <li>⑤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 (자기학교 학생은 오히려 보호)</li> </ul>
최근의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 수 혹은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li> <li>② 강제적인 심부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집단 따돌림,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 -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등을 활용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집단적으로 즐기는 사례가 증가</li> <li>③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li> <li>④ 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초등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li> <li>⑤ 학교 현장 내에서 많이 발생</li> </ul>

#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1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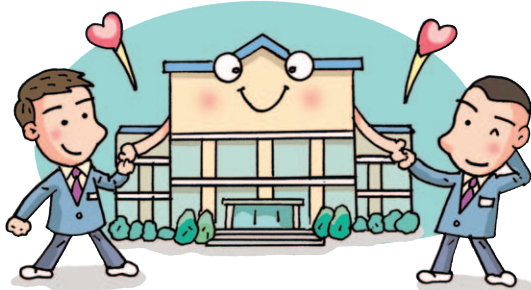
2

일반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 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속칭 '뺑 서들'의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강요받음

3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음



## 학교폭력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학교 **체육관**에서 청소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며 발로 찼다.



PC 방에서 놀고 있는데 학교 선배가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며 지나갔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집에 가고 있는데 학교 선배들이 돈을 요구하며 때렸다.

학교폭력의 79%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며 약 21%가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학교폭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혹은 가해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일회적인 피해가 아닌 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학교폭력법 상 학교 내 절차가 진행되는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주먹이나 발이 오고가지 않는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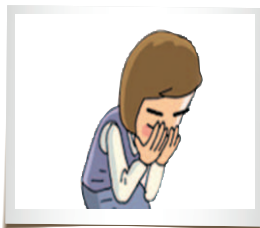
언어적 폭력



금품 갈취, 강요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 1. 신체적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상해죄, 폭행죄)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 2.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

## 3. 금품갈취, 강요

- 속칭 뺑(금전) 뜯기(공갈죄)
- 옷, 문구류 등 빼앗기(공갈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  
→ 속칭 뺑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강요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모욕죄)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모욕죄)

#### 5.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적 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행위(성폭력범죄 등)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성폭력 범죄 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모욕죄 등)
  - ※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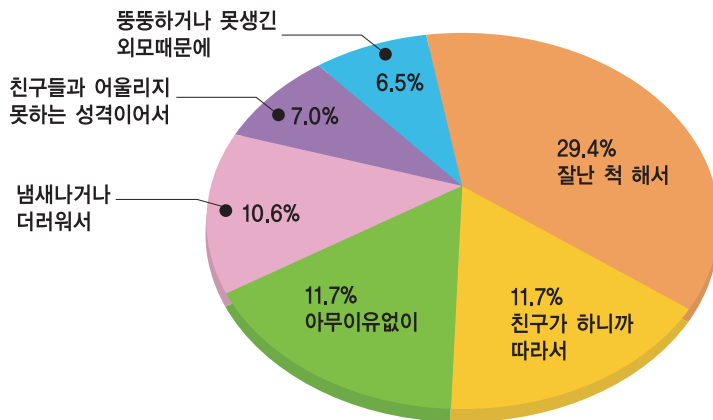
#### 6.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명예훼손죄 등)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협박죄 등)

➔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 왜 괴롭혔는지 물어보면

【집단 괴롭힘 가해이유】



집단 따돌림의 제일 큰 이유가 잘난 척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학생을 비난하고 험담 하면서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피해학생들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언행과 행동이 다른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더욱 큰문제는 뚜렷한 이유없는 집단 괴롭힘입니다. 친구가 아니까 따라서 하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가해행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소극적입니다

## 피해학생 대처방식

- 무시했다
- 혼자 고민했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 친구들과 상의했다
-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 다른 아이들 또는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렸다

피해학생의 대처방식을 묻는 질문에 “무시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혼자 고민했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한 경우는 불과 2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7.7%)” “다른 아이들 또는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렸다(5.1%)” 라는 응답도 상당수여서, 학교폭력이 다른 폭력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 4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면?

### 피해의 인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한 경우는 2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사전에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식별징후를 인지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 공감

피해자녀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려움을 스스로 털어놓았을 때는 일단 수용하며 편견 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에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자녀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정신적인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지나치게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선생님·친구들과 생활을 해야 하므로 자신의 고통을 가능하면 진통 없이 잘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증의 확보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물증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학교 측에서 피해상황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치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는 가해학생도 제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교사의 협조를 구하는 지름길은 치밀한 사전 준비와 물증 위주의 증거제시입니다. 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며 타협의 매개로 활용한다면 가해자 측의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물증의 확보방법

-  **서면 자료**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일기장, 주변친구의 진술서, 병원진단서
-  **사진자료**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  **사이버 자료**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  **녹취자료**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녹음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임)
-  **휴대폰 자료** 문자·음성메세지 보관

☞ 물적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현행법상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민·형사소송을 하나로 미·형사소송을 하나로

## ● 배상명령제도

- 교내분쟁조정 과정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 때 피해자가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위자료 손해만이 인정된다.

## ● 배상명령 절차 및 효과

-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할 때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었다면 이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상소제기 없이 배상 명령에 대하여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인적손해배상의 범위

### ● 재산적 손해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간병비(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 장례비 등
- 소극적 손해 : 피해학생이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장래기대 수익(피해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

###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생명, 신체, 자유 또는 명예 등을 침해당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하기도 한다. 또한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의 1/2정도를 공제하기도 한다.



● 위자료 산정기준

- ① 총액기준방법 : 사망 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고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전체 위자료 최대액수 합계를 8,0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준금액 8,000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제반 증감 요소를 고려하여 피해자 측 전체의 위자료 합계를 구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 및 친족에게 배분한다.
- ② 개인별 기준방법 : 사망 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고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최대 액수를 3,0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준금액 3,000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제반 증감 요소를 고려하여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정하고, 피해자의 친족은 이러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을 기준으로 신분관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한다.



# 자녀가 가해학생이면

## 가해의 인지

-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주변 상황과 근본원인(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오랜 구조적인 것인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감정에 따라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

## 성향변화 유도

-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 후 사안별 지도방법(선도나 처벌)에 따라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지도를 받는다.
- 자녀에게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피해학생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도록 한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분노를 조절하여 화가 났을 때는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범죄이고, 정당한 폭력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 친구관계 변화 유도

-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친구들을 생각하고 협동·배려하면서 교우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주변에 폭력적인 환경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학교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 만약 일진회와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필요하면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자녀의 생활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 자녀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라면?

(내 아이와 상관없는 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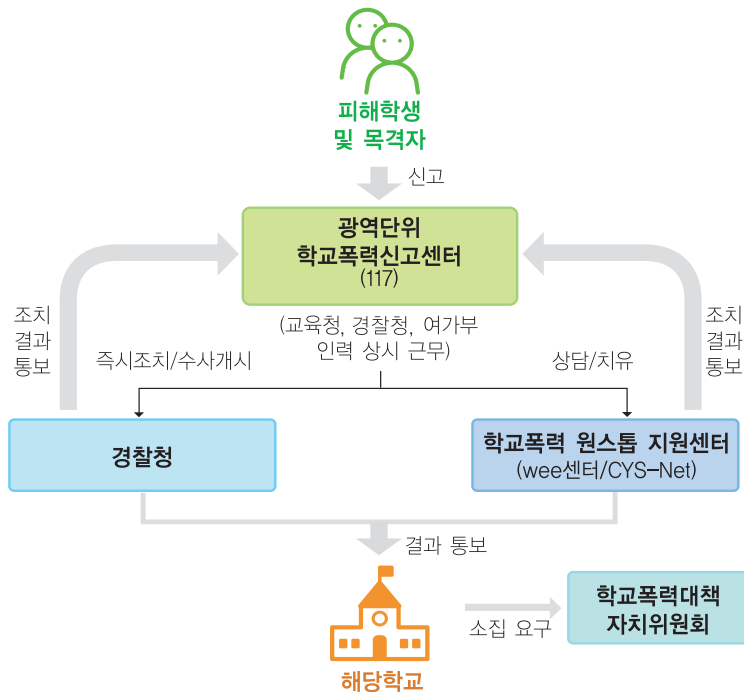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는 교사·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법률상 의무입니다.
- 학교폭력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피해자·가해자·학교 모두를 위하여 빨리 알려지고 신속하게 조치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의 고통속에 있는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친구의 학교폭력을 외면하지 않는다.
  -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친구를 대신해서 상담 전화를 한다.(국번없이 117)
  -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 피해학생을 돕는다.
- ※ 학교폭력은 학창시절의 문화가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센터 일원화



-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
- 1개소에 3~6명이 한 팀이 되어 상시 근무하며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기관 연계·배분 실시
- 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 경찰청 및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는 신고센터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안의 최종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
-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